

# “마음 속과 밖을 하나로”

## 승산스님의 가르침 '부처님께 재를 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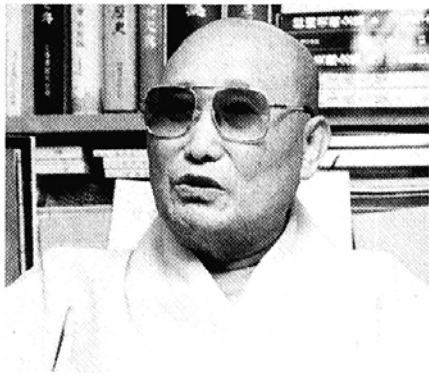
스티븐 미첼 역음/최윤정 옮김/여시아문 펴냄

### 승산스님의 법문·편지글 제자들과 선문답 등 모아

한 사람이 담배를 피워 문 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의 얼굴에 연기를 내 뿜기도 하고 손에 담배재를 털기도 한다. 당신이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마음 밝히는 책들 3' (부처님께 재를 털면)은 그릇된 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우주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임을 알도록 도와준다.

66년 일본 흥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120여개 흥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승산스님이 외국인 제자들과 주고받은 선에 관한 대화, 독창, 법문과 편지글을 모아 엮은 이 책은 '선(禪)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책이다.



하루는 시카고에서 온 학생이 승산스님을 찾아와 "선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주장자를 치켜들고 "이해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학생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그 모르는 마음이 바로 네 자신이다. 선이란 바로 그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며 자세한 가르침을 준다.

이 책은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온 승산스님의 선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승산스님이 외국인 제자들과 주고받은 선



에 관한 편지글(1973~1975)과 제자들이 자유롭게 던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식적 친근함과 현장감이 읽는이에게도 전해져, 마치 독자 스스로가 승산스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반복하는 선의 불꽃을 포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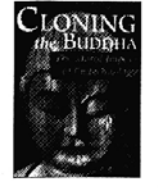
서구인들이 한국의 선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은 오늘의 한국인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맛이다.

수행의 정도가 제각각 다른 여러 제자들의 질문에 알맞게 답을 주는 승산스님의 가르침은 대개설법과도 통한다. 독자들에게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자신의 공부 길을 점검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마음에 드는 제목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만일 진리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모든 견해를 몽땅 놓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생각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생각 이전'의 깨끗한 마음에는 안과 밖이 따로 없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여여한 경지'가 진리인 것이다. 고려원의 부도도 절관련 이 책은 독자들의 요청으로 10년만에 여시아문에서 다시 펴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해외신간



▲복제된 부처님= 97년부터 과학자·생태학자·윤리학자간의 뜨거운 찬반론을 일으킨 '생명 복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영국의 저명한 불교학자 리차드 하인버그가 최근 <복제된 부처님(Cloning the Buddha: The Moral Impact of Biotechnology)>을 펴냈다. 이에 대해 해답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상가라시타, 달라이 라마 등 영국불교계의 지도자를 비롯 정치·경제·과학계의 인사 20여명의 인터뷰를 각 장마다 소개하고, 복제에 대한 과학적 배경이 없는 독자들이 '생명 복제'를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Quest Publishing 출간 ISBN 0835607720



▲고향으로= 불교와 기독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간과 사회의 구원에 앞장서는 세상을 그린 <고향으로(Home: Jesus and Buddha As Brothers)>가 출간됐다.

프랑스 프랑빌리지에서 눈 푸른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탁남한스님(베트남)은 이 책에서 "각 종교계는 반목과 지나친 포교 전쟁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쌓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야 하며, 함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탁남한 스님은 동·서양의 신앙 형태와 대상을 경시하지 보다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iverhead Books 출간 ISBN 1573221457



▲부처님의 발자취= 아시아 각국의 사찰에 봉안된 부처님의 모습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다. 라세스 외리 교수(홍콩대·아시아미술)가 발간한 <부처님 발자취(In the Footsteps of the Buddha: An Iconic Journey from India to China)>에는 중국, 일본, 홍콩, 미얀마 등지의 대표적인 불상 121구의 사진과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또 각 불상이 조성되면서 지역 사회에 미친 정치·문화적 영향을 추적·분석하고 있어, 아시아권 불교문화사에 관심을 둔 불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Odyssey Publications 출간 ISBN 9622176429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경전·고서에 담긴 지혜의 말씀 묶었다

구미래서 '수행의 강을...' 등 두권 펴냄



수행·지혜·사랑·행복·죽음이라는 삶의 다섯가지 주제를 경전과 고서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엮은 두 권의 신간이 동시에 출간됐다. 우리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구미래씨가 오색시리즈 두 번째 권으로 펴낸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와 세 번째 권인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한 세 강)가 바로 그것.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는 빨간색으로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계산없는 사랑' 등 자비와 사랑에 관한 57가지 이야기들을,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파란색으로 마음되는 공부에 관한 57가지 이야기들을 각각 모아 엮은 것이다. 이 두권이 실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일본 등 동양 각국의 경전과 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두 권에 실린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 함축한 변상도(變相圖)를 적절히 수록,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와 읽을 재미를 더하게 한다. 변상도는 주로 고려·조선시대 목판경전을 토대로 했다. 값 각각 4천5백원.

## 현진스님 '수능엄경정맥소' 번역출간

중국 명나라 때 교광 진감스님(1586~1596)이 12년에 걸쳐 저술한 대작 <대불정수능엄경정맥소>를 저본으로 한 <수능엄경정맥소>(법공양 권)가 번역 출간됐다.

<능엄경> 독송을 수행으로 삼아온 현진스님(직지사 승가대학 강주)이 은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정맥소를 연구하여 번역한 것. 이 책은 <정맥소> 40권중 7권~13권(능엄경 1~2권)의 내용이다. <정맥소>의 구조는 1권에서 6권까지는 <능엄경>에 대한 전체의 개요를 설명한 부분이고 7권부터는 경문해석이 시작된다.

신간 <수능엄경정맥소>는 <능엄경>으로는 서문과 정종문 중에서 견도문에 해당한다. 전체 견도문의 내용 중 절반 가량이 포함되어 있고, 회통사과(會通四科·오음, 육인, 십이처, 십팔계)에서도 오음까지만 설명하고 있다. 값 2만2천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종경	원성 이레	이레
2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한다	류시화 나부람/편	나부람
3	영가전도	우룡 효림	효림
4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최인호 여백	여백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타 불교시대사	불교시대사
6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	이남덕 불광	불광
7	육바리밀 수행법	김현준 효림	효림
8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선재
9	무소유(개정판)	법정 법우사	법우사
10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현장 우리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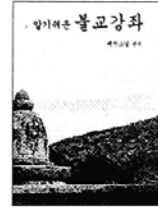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 간추린 불교

### 대안스님 '알기쉬운 불교강좌'

불교교양대학 학인들이 불교교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금호사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스님이 엮은 <알기쉬운 불교강좌>(보광 권)는 교리와 수행 등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지만을 간추려 실었다. 이 책은 사찰의 구조와 예절에서부터 부처님 일대기, 불보살, 불교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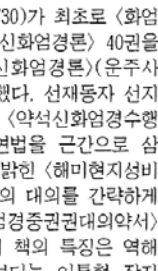
상, 경전결집, 불교의 역사, 불교미술·건축·음악·무용, 재가불자의식, 참선 등 모두 21장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은 심도있는 교리공부를 위한 각주 및 참고문헌 수록, 수행과 교리 동시 수록, 친근함을 위한 구어체문장 등이다. 대안스님은 "생활불교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은 이 책의 내용정도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값 1만5천원.

## 약역 신학엄경론

효산스님 역해

### 화엄경 80권 이해쉽게 보충설명

이통현 장자(635~730)가 최초로 <화엄경> 80권을 주석한 <신화엄경론> 40권을 효산스님이 <약역 신학엄경론>(운주사 권)으로 역해해 출간했다. 선재동자 선지식의 법문을 요약한 <약역신학엄경수행차제결의론>, 십이인연법을 근간으로 삼아 열가지 문을 세워 밝힌 <해미현자성비실명론>, 화엄경 80권의 대의를 간략하게 서술한 <대방광불화엄경중권관대의약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역해자의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이통현 장자의 <대론>과 청량국사의 <화엄경소> 등 대가들의 논소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 2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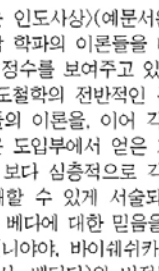


## 학파로 보는 인도사상

김형준 옮김

### 인도철학 학파별 특징 상세히 소개

<학파로 보는 인도사상>(예문서원 권)은 인도철학 각 학파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인도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인도철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비롯 각 학파들의 이론을, 이어 각 학파의 소개 부분은 도입부에서 얻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학파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인도에서는 베다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정통학파(니야야, 바이셰쉬카, 상키야, 요가, 미맘사, 베단타)와 비정통학파(차르바카, 자이나, 불교)로 구분된다. 김형준씨가 옮긴 이 책에서는 인도철학의 학파를 아홉 개로 나누어 소개한다. 값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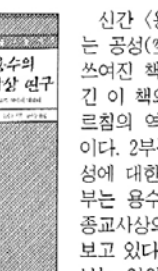


## 용수의 공사상 연구

남수영 옮김

### 모든 사물을 '空性'으로 보는 까닭

신간 <용수의 공사상 연구>(시공사 권)는 공성(空性)이라는 관념의 이해를 위해 쓰여진 책이다. 동국대 남수영 강사가 옮긴 이 책의 1부는 용수가 배운 종교적 가르침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조사이다. 2부는 공성이라는 용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3부는 용수가 사용한 공성의 용법을 인도 종교사상의 다른 표현들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다. 4부에서는 모든 사물을 공으로 보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일반적인 종교적 관점의 맥락, 즉 제한된 인간 존재를 가장 완전하고 자유로운 실재로 전환시키려는 관점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값 9천원.



## 마음 밝히는 책들 3

###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승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승산 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교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흥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흥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승산 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훑을 때, 내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동원비, 한 지척이 근심 두렵지 않다'는 정신으로 시대적 책임감을 띠고 있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